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10)

주제: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문학과 동아시아 관계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기금회 제 10 회 덴리대학(天理大學) 명예 교수인 오타 노보루(太田登) 教授를 초청하여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문학과 동아시아간의 관계」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본 강의는 이번 학기 처음 온라인으로 일본과 연결하여 진행되었으며, 오타 교수는 2002 년 교환교수 신분으로 본교에 부임하였을 때 SARS 을 경험하였고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만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1. 이시카와 다쿠보쿠 (1886 년 2 월 20 일~1912 년 4 월 13 일) 存在의 의미

우선 오타 교수는 다쿠보쿠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였다. 역사학자 카노마사나오(鹿野政直)의 작품을 인용하여 1901 년 사망한 두 명의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의 죽음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기간의 근대 일본 ‘제국’의 영광과 그림자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만약 두 명의 사상가가 민족과 국가 간의 과제를 자기 자신의 과제로 여기며 최선을 다한 사상가라고 한다면, 다쿠보쿠는 20 세기의 막을 열기 위해 10 여년 간 노력한 문학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다쿠보쿠의 청일전쟁에 대한 견해 (1894 년 8 월~1895 년 4 월)

청일 전쟁은 다쿠보쿠가 10 살 경에 발생한 전쟁이다. 「空中書」(《岩手日報》1908 年 10 月 16 日) 에서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청과 러시아에 멸시와 경멸의 행동은 정말 사려 깊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패전 후 중국은 「哥老會」로 미래의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조직에 눈을 떴다. 다쿠보쿠는 「百回通信」(《岩手日報》1909 年 10 月 9 日) 에서 청나라 고위 관직자인 張之洞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한다. 張之洞은 많은 인재들을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 보내기도 하였다. 다쿠보쿠는 러일 전쟁 후 중국 유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3. 다쿠보쿠의 러일 전쟁에 대한 견해 (1904 년 2 월~1905 년 9 월)

다쿠보쿠는 러일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戰雲余祿」(《岩手日報》1904

年 3 月 12、19 日)을 쓰게 된다. 다쿠보쿠는 러시아가 비록 적국이지만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제국주의 정치의 폭정 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국가라고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아시아와 전세계가 모두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러시아 국민들이 해방되기를 바랐다. 러시아 내에서는 톨스토이, 막심 고리키 등의 저서가 금지되어 있다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일종의 언론 탄압의 하나라고 하였다. 다쿠보쿠는 적국인 러시아 마카로프 총사령관의 죽음을 시로 추모하기도 하였다. 「마카로프 중장에 대한 추모」라는 제목의 긴 시에서 보듯이 다쿠보쿠는 적국의 용감한 장병들을 시에 담아 기념하고 있다.

4. 다쿠보쿠의 한일합방에 대한 견해 (1910년 8월)

가쓰라 내각(桂太郎內閣)이 1908년 3월 반포한 〈戊申詔書(무신조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왕 중심의 국체사상(國體思想)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909년 3월 다쿠보쿠가 재직하고 있던 도쿄의 아사히 신문사에 신문검열제도를 강화하는 신문법(報紙法)을 발표했다. 엄격한 언론통제를 가한 것은 한국 병합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에게 암살당한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후미(伊藤博文)에 대해 다쿠보쿠는 〈百回通信(백회통신)〉의 〈16 이토 히로후미의 부고(十六伊藤公的訃報)〉에서 일본을 위해 이토 히로후미의 죽음을 추모하는 한편,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역사관을 보여 준다. 오타 교수는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다쿠보쿠는 국가주의와 국제주의가 교차하는 다중적 관점을 갖고 있고 당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각을 가진 소수의 인물 중의 하나라고 그의 입장을 밝혔다.

5. 다쿠보쿠의 신해혁명에 대한 견해 (1911년 10월)

다쿠보쿠는 1911년 10월 10일 발생한 중국혁명동맹회의 혁명 저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다쿠보쿠는 신해혁명이 러일 전쟁 후 청나라 정부가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쿠보쿠는 중국에서 일어난 인민 주도의 혁명을 관찰하며 일본의 체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6. 다쿠보쿠 동아시아 간의 수용

다쿠보쿠가 사망 후 그의 단편집과 시집이 나왔다. 그의 작품 중 사회 문제의 근원을 '가난'으로 보았으며 그의 작품은 대중들의 응원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근대 수필가 저우쥘런(周作人)도 다쿠보쿠의 작품을 즐겨 읽었으며, 중국어로 그의 작품을 번역하였고 1920년 중국의 新詩革命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만에서는 다쿠보쿠의 작품을 린페이쑹(林丕雄, 淡江大學榮譽教授), 린수에이푸(林

水福, 台灣國際啄木學會理事長), 가오수령(高淑玲, 景文科技大學副教授), 류이전 (劉怡臻, 明治大學 博士課程) 등이 연구하고 번역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